

#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본 파병의 비교정치 : 『배반당한 평화』(서보혁, 진인진, 2017)

---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 모순된 현실 :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와 파병

주변을 둘러보면 학계이든 사회운동 영역이든 신념의 관점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를 독립된 대상으로 이론적으로 천착한 연구자들은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서보혁은 매우 독보적인 연구자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오늘 『배반당한 평화』는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미덕은 주제의 참신성이다. 이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91년 걸프전에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 파견을 시작으로 유엔평화유지군(UN PKO),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 등 2016년 7월 현재 총 28개 국에 48,918명의 군인을 파견했다(278쪽). 물론 여기에는 전사자 5,099명을 포함하여 32만 4,864명에 달하는 베트남 파병은 제외되어 있다.

파병의 규모와 역사 탓에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을 다룬 연구들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적지 않게 제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한국군의 파병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제법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을 비교의 관점에서 다룬 단행본 연구는 『배반당한 평화』가 최초이다. 저자의 말을 빌자면, “개별 파병 사례나

파병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량 출간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비교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18쪽)이다. 그런 점에서 『배반당한 평화』는 평화학의 관점에서 파병의 비교연구를 수행한 우리학계의 첫 발인 셈이다.

두 번째 장점은 이론의 적절한 구사가 빛고 있는 설명과 설득의 힘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의 대개는 이론과 사실의 불균형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역사적 사실의 발굴과 추적에 힘을 쏟아 왔다. 특히 역사학이나 인문학의 연구들은 베트남 양민학살 등 인권과 도덕의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이론의 적용은 소홀히 해 왔다. 반대로 이라크 파병을 다룬 근간의 연구들, 특히 국제정치 분야의 학술적 연구들은 현실주의든 자유주의이든 기계적으로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무미건조한 정부 보고서를 읽을 때의 식상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배반당한 평화』에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는 비판적 문제의식이 전면에서 흐르고 있고, 제한된 합리성과 합리적 현실주의라는 잘 정련된 이론들이 비교의 재미와 풍성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미덕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외교안보의 주요 쟁점과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핵 문제나 남북분단 해소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된 ‘분단국가의 파병정책’이라는 제법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모순된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조금은 진전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이 파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거나 경제발전을 목표로 파병에 뛰어 들었다는 단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의 진의는 파병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상과정, 반전평화운동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

치세력의 동학, 또 다른 행위자인 북한의 반응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고도의 게임들을 복합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주요 이론과 주장들

이 책은 모두 8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 내용은 II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II부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II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선택한 제한적 합리성과 게임이론의 하나인 양면게임이다. 제한적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목적과 대안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되, 결정과정에 행위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황과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한편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내적 합의의 크기’를 뜻하는 윈셋(win-set)이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가정한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각 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재미이며, 다 읽고 나서는 이론과 역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책의 장점을 깨닫게 된다.

본격적인 파병의 비교 연구는 파병의 결정요인을 다룬 III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정치·경제·사회적 변수라는 대내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비대칭적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은 해당 시기 조건의 속성과 무관하게 파병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104쪽). 이

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주요 목표가 경제적 부(Plenty)보다는 군사적·이념적 안보로 충칭되는 권력(Power)에 있었다는 커밍스(Bruce Cummings)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sup>1)</sup> 하지만, 대내적 요인의 영향력의 서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박정희정권 하의 파병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비롯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크게 고려되었지만,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던 노무현정권에서는 경제든 군사든 물질적 이익(interest)보다는 파병반대여론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IV부는 역동적인 파병 결정과정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의료·공병 부대로 이루어진 2003년의 1차 파병과 ‘자이툰부대’로 불렸던 2004년의 2차 추가 파병을 보면, 두 경우 모두 한국의 원샷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9·11 테러 이후 파병을 무조건 관철해야 하는 미국에 비해 전투병 또는 비전투병 등 다양한 파병 방식을 논의하였던 한국의 입장이 유리하였고,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국내의 여론 형성도 한 몫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2차 파병 당시 노무현 정부가 높아지는 ‘파병반대여론을 활용’해 미국과의 파병협상 절차를 지연하거나 세분화하는 원샷 조정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다(143쪽). 이라크에 비해 베트남전의 협상 구도는 보다 단순했다. 무능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남베트남 정부와 점차 고조되었던 국내외의 반전여론을 상대해야 했던 미국으로서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맹국들의 협력이 절실하였다. 원샷이 축소되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사단 수준의 전투병 파병을 하였던 박정희정권에게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등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V부는 파병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질문은 파병 이후 이라크와 베트남은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왔으며, 그리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개선 여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책의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IS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승리와 후세인 정권의 제거 이후에도 이라크는 여전히 깊은 내전의 늪에 빠져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전의 민간인 희생자 수는 무려 145만여 명에 달하지만(209쪽), 참전의 명분이었던 후세인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국제테러지원은 부시는 물론 오바마정권에서도 밝혀진 바 없다. 미국에게 수모를 안겨준 베트남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책은 80여 건에, 그 수는 5천 명에서 8천 명에 달하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은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던 대한민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221~223쪽).

VI부에서는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VII부에서는 한국의 파병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다국적군 평화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던 해외파병활동의 법제화와 관련된 쟁점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 자기제한적 신중함에 가려진 평화의 시선과 목소리

이 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논리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한계 또는 흠결도 보인다. 먼저 체계에 있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다룬 VI부와 한국의 파병정책의 현황과 전망이 담긴 VII부는 본문에

담기보다는 별도로 부록 또는 말미에 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책의 최종 결론(VIII)이 나오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호흡의 끊김과 무엇보다도 중복된 내용을 읽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사실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다룬 VI부의 적지 않은 내용들이 이미 앞 장에 서술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아울러 III부와 IV부에만 소절을 둔 까닭도 궁금하며, 각 장절에서 베트남과 이라크의 설명 순서가 고정되지 않은 것도 읽는 데 혼동을 준다.

또 하나, 정확히 말해 더 큰 문제는 필자의 신중함과 절제가 낯은 ‘낯은 목소리’에 대한 순전히 개인적인 불만이다. V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파병이 가져온 결과를 ‘명암’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파병을 추진할 수 없었던 정부의 입장과 평화운동의 논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끔 필자의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파병 결정과정(IV)의 소절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기보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에 기대어 글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가장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은 필자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화주의적 파병’의 적절성 문제이다. 필자의 진단대로 환경과 인권, 내전과 지역갈등의 다양한 국제 갈등의 분출은 일국을 넘어선 국제협력과 평화유지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일체의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필자는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해법으로 ‘평화주의적 파병’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수단의 차원에서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를 지닌 비전투병 파병이고, 둘째, 목적 자체가 전투가 아니라 평화유지이어야 하며, 셋째, 특정 세력을 지지하거나 편드는 무력충돌 상

황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320~322쪽).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수단과 목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파병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평화주의적 파병의 사례로 UN PKO를 들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자면 더구나 피파병국의 입장에서 그것 또한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나아가 핵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의 휴전상황에서 군대의 파병을 숙명론적으로 수용하는 현실론은 궁극적으로는 ‘파라파첼’(평화의 준비)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배반’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솔직히 말해 이 지점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군철수, 평화협정체제가 타국의 잣대(소위 키신저 해법)로 오르내리고 있는, 작두위에 선 한반도의 현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이론의 구체화를 기대했던 오랜 지인이자 동료 연구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어쨌든 대안적 파병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는 필자가 정확히 지적한대로 파병 요건의 엄격성과 파병의 다변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끝으로, 『배반당한 평화』는 평화와 파병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 수준을 한 층 끌어올리고, 이 주제를 다룬 1,500여 권이 넘는 논문과 단행본의 맨 앞에 서있음은 분명하다.

## • 주

- 1) Cummings, Bruce. "Power and Plenty in Northeast Asia." *World Policy Journal* 3 (Winter 1987-88).